

【 주간포커스 】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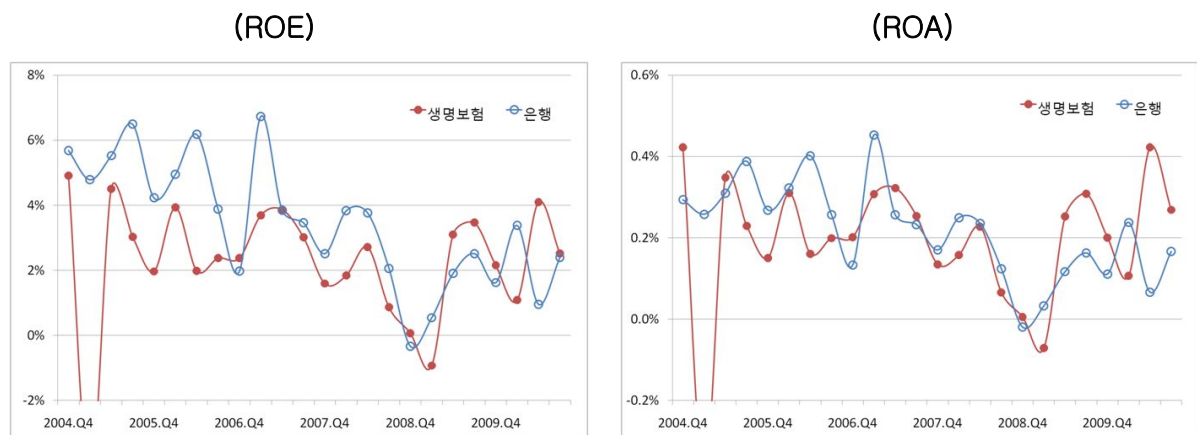
진익 연구위원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볼 때,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사업비차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금융회사에게 순이익의 안정적 확보와 이익잉여금의 지속적 축적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장기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업비차이익을 통해 이자율차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용인되지 않으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3이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현금흐름방식(CFP)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 실현을 근거로 금융소비자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을 보여주는 3이원방식을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됨.
 - 3이원방식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순이익(이윤)을 위험률차이익, 이자율차이익, 사업비차이익으로 구분하여 표현
 -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은 금융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인 만큼, 일본처럼 순이익이 주로 위험률차이익에서 발생하는 것과 국내처럼 순이익이 주로 사업비차이익에서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생명보험회사 순이익이 3이원 중 어느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는 양국의 시장환경 및 규제감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생명보험회사가 타 금융업에 비해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 여부는 전반적인 수익성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보면 생명보험회사와 은행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 금융회사의 순이익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보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부적절하게 전가한 경우에는 순이익 수준이 과도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를 통한 순이익 수준의 적정성 평가가 가능
- 최근 6개년(24개 분기: 2004년 4/4분기~2010년 3/4분기) 동안의 자본수익률(ROE) 추이를 보면, 생명보험회사와 은행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가 상당부분 회복한 상태임.
 - 생명보험회사 자본수익률은 2007년 3/4분기 3.02%에서 2009년 1/4분기 0.93%로 낮아졌다가 2010년 3/4분기 2.52%까지 회복하였음.
 - 은행 자본수익률의 변화 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07년 3/4분기 3.47%에서 2008년 4/4분기 -0.33로 낮아졌다가 2010년 3/4분기 2.39%까지 회복한 상태
- 다만 자산수익률(ROA)을 보면,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은행에 비해 다소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차이가 금융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달성한 사업비차이익에 기인한 것은 아님.
 - 생명보험회사에서 자산수익률이 자본수익률에 비해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본확충과 자산재평가에 따라 자본이 자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회사의 레버리지비율(자본 대비 자산 비율)이 2008년 4/4분기 13.56배에서 2010년 3/4분기 9.36배로 크게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은행 레버리지비율은 16.94배에서 14.40배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침.

<그림 1> 수익성 지표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재무건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들이 순이익을 기반으로 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가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위험노출을 줄이거나, ② 외부로부터 자본을 확충하거나, ③ 순이익의 내부 유보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축적하는 것임.
- 은행상품 만기가 단기인 반면 생명보험상품 만기는 장기인 관계로, 생명보험회사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노출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결과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보다 큰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급부형 보험상품에 대해 높은 예정이율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이득을 얻는 대신 보험회사가 손실을 부담하는 상태
- 앞서 자산수익률(ROA) 추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자본확충 및 자산재평가를 적극적으로 실행
-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볼 때 순이익 누적에 기초한 재무건전성 제고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이자율차손실을 보전하는 사업비차이익이 유지되지 못하면 손실누적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률차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억제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사업비차이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 금융회사 순이익의 적정수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사업비차이익의 지속적 발생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은행 이자이익의 지속적 발생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에 기초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주장임.

□ 향후 생명보험회사와 은행 모두 재무건전성을 제고한 후, 본연의 금융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익구조를 전환해 가야 할 것임.

- 이윤동기를 보유한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순이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3이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현금흐름가격결정방식(CFP)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사업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임. KiRi